

〈續〉 奎章閣再生本 〈坤輿萬國全圖〉(2010)의
原本은 옛 奉先寺藏本이다

정기준*

-
1. 再生된奎章閣本 〈坤輿萬國全圖〉와 그原本
2. 原本의 追跡과 復元
3. 직접적 寫眞證據의 出現
-

초록：2011년의 再生된奎章閣本 〈坤輿萬國全圖〉의 原本을 追跡 이후, 1914년에 촬영된 奉先寺藏本 〈坤輿萬國全圖〉의 사진이 발견되어, 이로 인한 추가정보를 싣는다.

핵심어 : 肅宗版 〈坤輿萬國全圖〉, 奎章閣, 奉先寺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 再生된奎章閣本〈坤輿萬國全圖〉와 그原本

나는奎章閣圖書 속에 거의 잊혀져 있는寫眞本〈坤輿萬國全圖〉(奎)25289를擴大하여 면밀히 검토 한 결과, 그品質의 優秀性에 壓倒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1708년 肅宗의 御命으로製作하여 肅宗에게 바친 “御覽用”의 〈坤輿萬國全圖〉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寫眞의原本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御覽用이原本은 없고, 사진만 남아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原本이 불타버린奉先寺藏本일 것이라는 강한 心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證據, 소위 “理性的 의심의 여지가 없는 證據”가 있는가?

2. 原本의 追跡과 復元

그 추적과정이 2011년의 글이다. 이 글에서 나는 나름대로 “理性的 疑心의 여지가 없는 證據 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를 찾아 그原本이 불타버린奉先寺藏本임을 立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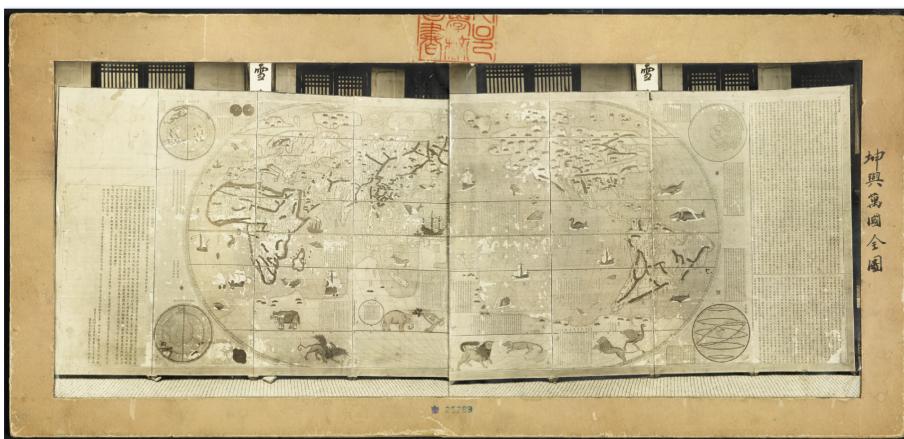
그 후 2013년, 奉先寺와 함께 南楊州郡에 소재하는 京畿道實學博物館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復元하여, 그 하나를奉先寺에 寄贈하였다. 그寄贈法會에, 봉선사는 서울대학교奎章閣韓國學研究院長도 招請되었다.

3. 직접적寫眞證據의 出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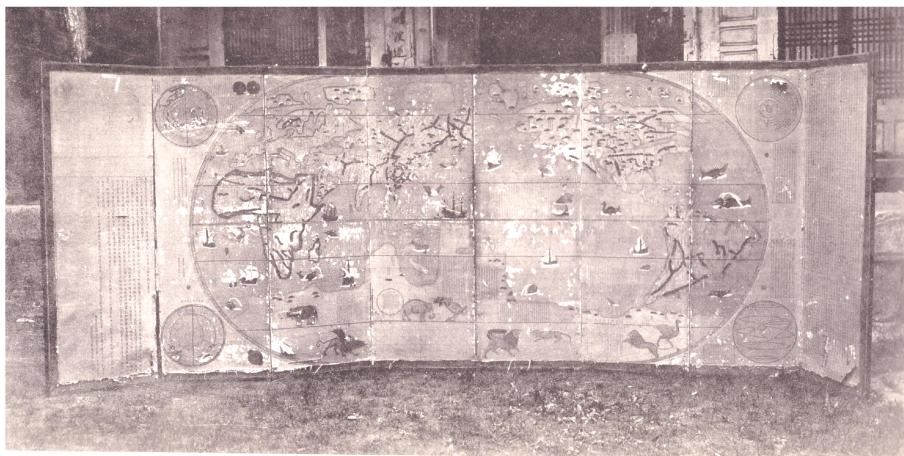
2011년의立證은 100퍼센트 입증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히 직접적인 증거가 출현하였다. 2014년은 1914년 京元線이 개통된지 100년이 되는 해인데, 그해 9월에 KBS의 “진품명품” 프로그램에 100년 전의 京元線開通紀

念寫眞帖이 出品되었다. 그 사진첩은 沿線의 風物을 담은 것인데, 거기에 奉先寺 사진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특히 奉先寺의 寶物인 〈坤輿萬國全圖〉의 모습이 들어 있었다.

나는 이 眞寫帖 所藏者를 추적하여, 그 사진을入手하였다. 아래는 규장각의 사진과 그 사진첩의 사진이다.



1932년 사진



(藏所寺先奉) 圖地國萬陵光

1914년 사진

이 두 사진을 보면, 被寫體가 동일한 물건이란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다. 對象이 동일하다는 것은 毀損된 部位의 모습을 볼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오른 쪽 九重天圖의 윗부분의 훼손이 그렇고, 오른 쪽 日月蝕圖 그림의 變色이 그러하다.

내가 2011년 온갖 間接的인 證據를 菲集하여 증명하려고 했던 사실이 이 한 장의 사진의 발견으로廓然해지는 것이다.

奎章閣 寫眞本<坤輿萬國全圖>의原本은, 이제는 불타버린 奉先寺藏本<坤輿萬國全圖>다.

논문투고일(2017. 4. 30), 심사일(2017. 5. 18), 개재확정일(2017. 6. 5)

참고문헌

織居本店寫眞機部納品, 1914 『京元線寫眞帖』.

鄭基俊, 2011 「奎章閣再生本 〈坤輿萬國全圖〉(2010)의 原本은 옛 奉先寺藏本이다」, 『奎
章閣』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